up

+ 박임실 · SBS 아트텍 아트3팀 부장

이벤트 조명

1. 이벤트 조명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 받는다. 조명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거 이벤트 조명이라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자재의 문제와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며, 환경도 너무나 열악했다.

이벤트 행사의 목적은 "기존의 닫혀 진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발 다가서서 현장감을 살리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장을 이용하는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종합경기장이나 체육관에서 할 수도 없고, 넓은 들판에서 자연과 벗 삼아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 지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옛날에는 밤에 밖에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으며, 밤을 밝혀 줄 빛조차 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두려움과 악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은 빛의 용도가 너무나 무한해서 간단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이다. 현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빛을 실생활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즐거움과 예술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 조명도 행사 성격으로 보아 이벤트 조명이지만 크게는 조명의 일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명을 해야만 나타내고자 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스튜디오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대형 행사장이나 야외에서의 조명에 대해 기술한다.

1)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조명 작업을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명 바턴과 조명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바턴 시설은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세트의 높이에 따라 혹은 감독이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일정한 색온도와 조도를 유지하고, 기능에 맞도록 여러 종류의 램프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선, 스튜디오 제작에서는 카메라에 적합한 기구와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구로는 스포트 1kw, 2kw, 3kw, 5kw, 10kw 등 용량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소프트에는 브로드가 있는데 램프를 용량에 맞춰 바꿔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두 종류의 기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형광라이트나 우산라이트 등을 사용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부드러움을 갖는 조명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체육관과 대형 행사장

행사장에서는 날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스튜디오처럼 바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철근 구조물을 인공적으로 조립하여 조명에 필요하게 설치를 해야만 한다.

3) 야외 공원, 수영장, 스키장

계절에 맞게 야외 행사를 치르다 보면 계절별로 어울리는 장소를 선택하여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하던 행사를 실외에서 할 때는 무한한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곳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스텝들은 긴장되고 일도 많아진다. 특히, 수용장이나 스키장 같은 곳에서는 감전사고의 위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 등 항상 안전사항에 대비해야 한다.

4) 극장, 회관

이벤트 행사나 대형 오페라 등을 열 수 있는 대형 극장과 회관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이 갖춰져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

5) 야외 행사장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를 치룰 수 있게 이동용 철근 구조물과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진행 순서

1) 협의

이벤트 행사 전에 협의를 거쳐서 행사의 목적, 진행 상황, 전체 행사의 흐름, 스텝의 만남, 사전답사의 일정, 관계자와의 연락, 전체 일정, 진행표의 점검, 예산 등을 논의한다. 이 협의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스텝이 참관하여 논의를 해야만 각 파트별로 일을 무리 없이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협의의 주체는 연출가가 되겠지만 의심이 가는 점은 항시 질문을 해서 확인을 받아 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공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협의에 참석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행사에 도움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2) 사전답사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히 사전답사를 해야만 한다.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행사의 성격이나 무대의 위치, 주변 시설물의 변경, 잦은 행사장의 변화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꼭 해야만 한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 일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경우에는 행사장 전체가 다른 곳으로 새로운 시설로 된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답사가 있어야만 한다.

조건은 모두 좋은데 행사가 겹쳐서 빌릴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된다. 그럴 때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조건이 열악한 곳을 할 수 없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도면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점검해야 할 사항은 안전에 관한 것이 우선이다. 바람이 불면 어느 방향인가? 지반은 단단해서 그대로 철근 구조물을 사용해도 되는가? 해의 방향은 어떤가? 행사 출연진에게 불편한 사항이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발전차를 쓸 경우 소음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만 최대한 약하게 할 수 있는가? 메인 전원에 연결할 케이블의 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관객이 무대까지 진출할 경우에 전원선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가?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선연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항시 신경을 써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비책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많은 의심의 눈으로 확인을 해 보면서 상식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항상 어처구니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사전답사는 단순히 행사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열거하지 못한 부분까지 확인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답사가 행사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시설

장소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세트와 조명이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 행사 당일까지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실시하게 된다. 보통 조명은 트러스 작업 1일, 조명기구 설치 2~3일 정도를 예상하여 기간을 정하게 된다.

행사장의 사정에 의해 설치기간이 적을 경우에는 촉박하게 작업을 실시하는데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사전협의와 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의 누수와 전체 스텝의 일괄된 업무 진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조명의 트러스(철근 구조물)는 무대디자인의 세트와 세밀한 부분까지 논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 트러스의 기본 베이스를 설치하게 된다.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트러스는 조명기구를 설치할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고안된 철근 구조물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트러스가 완성이 되면 세트작업을 병행하면서 조명기구를 트러스에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PAR Light, Moving Light 등인데 행사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각 기구는 딤머(Dimmer)에 연결되어 컨트롤하게 된다. 물론, 조명연출은 조명감독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행사 시 인원이 10~12명 정도가 투여 된다.

무대에서의 조명기구 세팅이 완료되면, 무대 정면을 밝혀 줄 기구와 PIN이라는 Spot Light를 설치하면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그런데, 보다 많은 특수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사 성격에 맞게 조명 연출을 하여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3. 특설 공간의 조명 설비

특설 공간은 어떤 콘서트를 위한 맞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명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해외에서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특설 공간에는 공연장이 변해도 그 콘서트에 맞는 공간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필요한 공간을 모두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다.

1) 특설 공간의 정의

특설 공간은 보통 생각하는 공연을 개최하는 것에 맞춰서 Infra-structure(기본적인 시설, 설비, 기재, 환경)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모든 장치를 가설해서 어떤 공연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어떤 부분만 설비된 것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조명 설비나 조명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연을 행하는 장소를 여기에서는 특설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설비가 갖춰져 있는 공간이라도 공연내용에 따라서 기재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특설 공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설 공간이라는 것은 그 공간 자체의 설비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공연을 행하는 측에 있어서 어떤 공연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뜻한다.

2) 극장이라고 하는 특설 공간

설비가 갖춰진 극장에 구조물과 조명을 가지고 들어가 구성한다는 것이다. 트러스를 설치하고, 철근 구조물을 세우고, 거의 모든 기재를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 갖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Front pin-spot, 각각의 전원 정도라고나 할까?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극장에서 왜 이러한 것이 행해질까? 투어라는 것은 콘서트에 국한되지 않고 각 공연지에서 같은 것을 같은 상태로 관객에게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같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콘서트투어에서 요구된다. 그리고, 거대한 콘서트투어는 매우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향상된 기재가 아니면 그 스케줄에 대응할 수 없다. 모든 기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극장에는 콘서트용 기재가 거의 없다.
- 기재가 공연장에 따라 매회 바뀌는 것은 없다.
- 바턴과 매다는 위치가 매회 바뀌는 것은 곤란하다.
- 트러스는 매회 같은 장소에 매달아야 한다.
- 매회 다른 기재로는 system up이 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콘서트에서는 각각의 전용 조명콘솔이 필요하다. Q의 수와 메모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동과 편의성의 문제점에서 전용 조명콘솔보다 좋은 것은 없다. 더구나 무빙라이트와 써치라이트는 100%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 최근에는 극장에도 좋은 장비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양이 소수라서 전국투어에서 메모리가 공유되는 일은 없다.

4. 특설 공간에 필요한 설비(트러스)

트러스(Truss)는 파이프를 격자모양으로 조립한 강도를 높인 구조물로 되어 있다. 재질로는 가벼운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강도가 강하고, 바턴에 비교해서 매우 적게 매다는 것에서 수 톤에 이르는 중량까지 매달 수 있게 설계된 철근 구조물이다. 특설 공간에서 일반적으로는 구조물의 기둥에서 체인 모터로 트러스를 매달아 내린다든지, 그라운드 서포트(Ground support) 방식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트러스를 끌어 올리는 전용 방식, 철근 구조물을 짜서 트러스를 가로지르는 방식 등이 이용된다.

1) 트러스 역사

트러스는 조명기재와 동시에 록(rock) 투어의 시작이후 록 산업의 정착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록 투어를 한 밴드는 영국에서 배출됐다고 한다. 1969년의 일로 현재와 같은 조명과 음향을 가지고 순회한 투어라고 한다. 비록 24대의 spot(PAR라이트는 아직 없었다)과 작은 수동 콘솔 정도였지만, 당시로서는 레드제풀린, 핑크풀로이드 등의 많은 밴드가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런던의 SHOW LITE와 LIGHT & SOUND DESIGN(LSD)이라는 조명회사이다. 조명회사들이 많은 밴드를 지원하였는데 SHOW LITE는 기재 메이커의 엘더 핸 산하로 또 LSD는 자사용 초기의 알루미늄 트러스를 JAMES THOMAS ENGINEERING LTD에 발주하여 만들었다. 이는 공동개발과 같은 형태였다. 자사용이라고 해도 어쨌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SHOW LITE는 로스엔젤스로 이전하고 THOMAS는 트러스와 조명기구 전문메이커로, LSD는 그 후 세계 최대의 조명회사가 되어 TOTAL FABRICATIONS라는 자사 생산부문을 만들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2) 트러스 종류

■ **무대와 조명용 트러스**

무대와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기본이 되는 중형, 대형의 트러스이다.

파이프 지름 : 48.6~50.8mm(2inch)

두　　께 : 3.5mm 정도

길　　이 : 500mm 피치로 최장 5000mm 정도

사 이 즈 : 460mm 각 폭 500mm × 높이 600mm 정도, 대형은 폭 1500mm × 높이 2000mm 정도(기둥과 연결 트러스는 차이가 있음)

■ **라이트 트러스, 디자인 트러스**

무대장치 전시회의 부스, TV에서의 세트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소형의 트러스이다.

파이프 지름 : 25.4mm(1inch), 38.1mm(1.5inch), 48.6mm, 50.8mm(2inch)

두　　께 : 1.6mm 정도

길　　이 : 500mm 피치로 최장 5000mm 정도

사 이 즈 : 215mm, 250mm, 300mm 등 직선 외에도 원형도 있음

3) 트러스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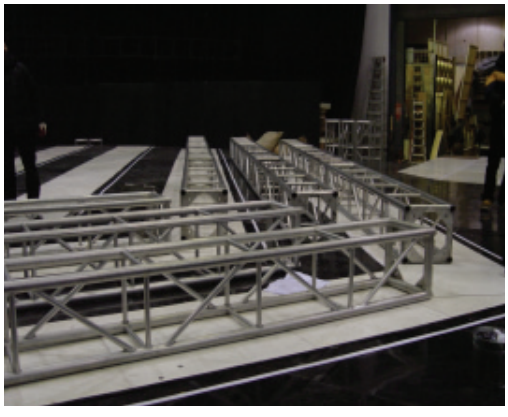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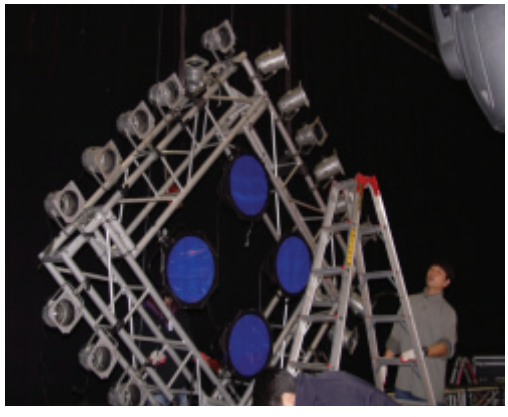
■ 사각트러스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러스이다. 측면이 격자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용방향도 한정되어 있다.

■ 삼각트러스 : 삼각트러스는 사각트러스의 공간 절약형이라고도 하는데, 사이즈에 비해 강한 강도가 있지만 트러스 위를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만 사용한다.

■ 사다리트러스 : 사다리 모양의 트러스로서 다양한 용도의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한다.

■ 원형 트러스 : 지름이 3M, 6M 등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진 원모양의 트러스이다.

주로 Accessory 구조물로 원뿐만 아니라 반원으로도 활용하는 트러스이다.

■ 무빙트러스 : 공연 중에 트러스 자체를 움직여서 특수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치기억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작동된다. 이 무빙트러스에서는 각각의 트러스와 모터를 조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헤비메탈, 록 등의 중량감이 있는 밴드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트러킹트러스 : 레일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트러스이다.

4) 트러스 제작사

■ JAMES THOMAS ENGINEERING: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진 무대용과 알루미늄 조명기구 메이커이다. 현재 트러스의 스탠다드는 여기서 만들어 진다. ground support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1978년 세계 최초로 완성시켰다. 트러스의 종류도 다양하고 영국에 본사, 미국에 지사가 있다.

■ TOMCAT: 기본적인 디자인을 THOMAS의 흐름을 따르고 미국에 본사가 있다.

■ TOTAL FABRICATION: 현재는 독립되어 있는데 LIGHT & SOUND DESIGN의 기재 제조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 PICA COOPERATION: 제품으로서 light truss를 만들고 있는데 각 무대미술회사에서 특별 주문으로 많은 수의 무대용 사이즈의 트러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5. 대규모 콘서트 특설 공간

대규모 콘서트 등에서 관객의 동원 수가 많은 경우는 체육관, 돔, 원형경기장(Arena) 등 기본적 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공연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기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재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무대도 없고, 바턴은 물론 pin을 놓을 장소도, 전원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극장의 몇 배되는 규모로 조명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 조명인들의 별도 능력이 필요하다.

특설 공간의 영상 전체를 염두에 두고, 총체적인 무대기구의 구축, 기초 무대업무, 트러스 매다는 위치, 재료의 양 등 이러한 규모에서는 단지 조명디자인의 범주를 넘어 무대 미술팀과의 연계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상개념 디자인의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세트디자이너의 눈으로 조명을 생각하고 조명디자이너의 눈으로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야외라는 특설 공간

야외에서는 극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우천대책, 누전대책, 그리고 가장 두려운 바람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번개와 눈, 기온과 습도도 관계가 있다. 여름 한낮에는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하고 여름밤에는 벌레에도 시달린다. 땅에 케이블을 끌어와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된다. 방수 기재도 없어서 시트를 씌운다든지 누전 체크도 되지 않아서 작업은 매우 늦어진다.

pin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시켜야 한다. 자연조건이 악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운운하기에 앞서서 우선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악조건에서는 기초가 정리된 확실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

기초가 확실히 다져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이는 것, 장면의 바뀜, 음의 변화, 움직임의 변화, 청각과 시각의 융합 등이다. 이러한 기본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필연성에 따라서 기재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사전에 작성해야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서 콘서트(잠실주경기장)를 했을 때, 대형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비만 운반하는 비행기를 운영할 정도로 많은 기자재를 직접 세팅했다. 초대형 무대를 만드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인원이 투여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자재와 감독들도 함께 투어를 한다.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장비와 최첨단의 기자재를 선보이면서 공연하는 모습에 공연무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런 준비와 행위들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당연했다.

7. 특설 공간의 염두사항

특설 공간에서의 업무는 일반적인 극장 설비와 기구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 많다. 그만큼 보다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연예술은 기존의 극장이라는 고정된 설비의 틀을 넘고 있다. 특설(가설) 기재의 진보에 따라 대회장, 야외,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특설 공간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커다란 공간에 디자인을 할 경우, 그 공간 전체를 창조적인 구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명예술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